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자라신지력 함양은 재배의 핵심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임조계 품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 전 국 (060)064-1300  
○ 서울본부 (060)070-1300

## 15년간 성보 453점 도난당했다

### 조계종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발간

지극한 불심을 바탕으로 최고의 기예와 정성으로 만든 성보문화재는 그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면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건한 종교적 경배의 대상이면서 민족의 정신적 자산이며 국가적 보물인 성보문화재가 관리·보존에 소홀한 탓에 현재 평균 30점 가까이 사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15년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이하 백서)에 따르면 지난 8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는 총 316건 453점. 이 중에는 보물 6점, 지방유형문화재 7점, 지방문화재자료 9점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준다.

15년간 도난당한 성보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한 이 백서는 사찰·지역·교구별로 색인을 두어 검색의 편의를 도모했고, 개개 문화재마다 소재지, 도난일시·경위, 시대, 크기, 재질, 사진 등을 게재해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 ■ 도난성보의 60%가 불화

도난당한 성보문화재의 유형을 보면 불교회화가 186건 275점으로 가장 많으며, 불교조각이 61건 109구, 탑과 18건, 기타 5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송광사 16구사자전영(보물 제1043호), 무량사 금동아미타불좌상(충남유형문화재 제100호) 등 지정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지만, 도난당한 대부분의 유형(94.8%)은 비록 지정은 안됐지만 지정문화재 못지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난 건수의 60%를 웃도는 불화의 경우 국제적인 경매장에서 고가로 경매되고, 기법과 부피가 적어 도난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돌아온다.

지역별로는 경북 111건으로 전체 약 50%를 차지하고 전남 60건, 경남 36건, 전북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난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전문 절도범들에 의해 한 지역이 집중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88년 4월부터 몇 달동안 전라도 지역의 금산사, 삼곡사, 흥복사, 운주사, 천은사, 도감사, 내소사 등이 차례로 성보문화재를 도난당했다. 전문 도난범들에게 한번 목표가 된 지역은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계절별로는 약한후가 많은 여름과 겨울에, 시간별로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80%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에는 태풍 또는 장마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등을 범행 일자로 선별한다는 것이다. 사찰에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개를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짙은 울음 소리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백서에 수록된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는 조계종 총무원의 호법부 호법부 그리고 문화재청에 신고된 것만을 파악한 것으로, 적잖은 오차를 안고 있다. 특히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은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난된 성보문화재는 이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보 도난 건수는 91년 48건을 최고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올 상반기 들어서는 12건이 발생한

### 95%가 비지정문화재 절반이상 경북지역서 밤 11시~새벽 4시 도둑 극성 성보안전관제시스템 필요

는 등 여전히 성보문화재는 도난의 위협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도난방지 대책 절실

성보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조계종이 문화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8일 조계종 교구본사 호법국장회의에서 주지스님들이 사찰을 비울 때 발생한 경우가 50% 이상이며 출타시 대중 및 소임자들의 도난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호법부는 성보문화재를 도난당한 사찰의 주지스님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등 보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웅만한 사찰은 도난방지, 화재방지, CCTV시스템 등을 설치했지만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 조계종 총무원이 강원도 S사찰에 대한 성보문화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했을 때, 당사할 주지스님은 도난방지시스템이 어느 곳에 설치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또 작동방법을 모르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비원도 없었고, 시스템은 작동불능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백서를 발간한 데 이어, 본사 단위에서 성보문화재를 관리하는 성보안전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공신력과 전문성이 가실된 보안업체를 공개입찰. 각 지역 사찰에 소장된 성보문화재를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97년부터 본사별로 성보실태파악에 착수해 온 조계종 총무원은 해인사와 월정사 본·말사의 성보 전산화작업을 끝낸 데 이어 봉암사 등 4개 본사의 성보문화재실태 조사작업을 이미 완료, 성보문화재의 빈번한 도난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문화재 전문 탈이법들의 범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대담해지는 반면 재차리 절을 하는 듯한 단국의 대비책도 개선돼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백서에서 법인들은 비지정문화재를 집중적으로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나타났다. 비지정문화재가 비교적 관리도 소홀한 편이라 처벌도 약한 점을 노린 셈이다. 현행법은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신고 이후 공소시효 5년만 넘기면 처벌없이 때때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비지정 사찰문화재에 대한 국가 및 시도문화재 지정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송광사 16구사자전영중 '해감국사' (보물 제1043호, 1780년 작, 1965년 1월 도난).



○선암사 '33조사도' (미지정, 18세기 작, 도난일시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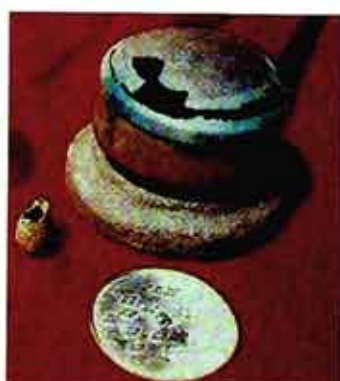
○선암사 '화산대사승탑동물상' (전남문화재자료 제42호, 1966년 2월 도난).



○백련사 '철조아미타불좌상' (보물 제994호, 고려시대 작, 1989년 12월 도난).



○대원사 '승탑' (전남유형문화재 제36호, 고려시대 작, 1984년 4월 도난).



○무량사 '청동내한 및 동제보살문물판과 동경' (충남유형문화재 제100호, 신라말, 1989년 7월 도난).



○기림사 '검지금니묘법연화경 권6' (보물 제969호, 고려시대 작, 1939년 12월 도난).



○홍성 신경리 마애석불은 지방양식이 강하게 나타난 통일신라 불상이다.

### 마애불을 찾아서

홍성 신경리 석불

굽타불상 착의법과 유사

통일신라 불상연구 자료

충남 홍성군 신경리에 있는 보물 355호인 이 마애불의 품위는 불경의인대 가슴의 옷깃이 불명명하지만 목우위로 돌고있어서 굽타불상 착의법과 유사하다. 옷주름은 무릎까지 전신에 걸쳐 U자형으로 표현하였고 무릎밑에 군의를 세로선으로 나타냈지만 불명명하게 처리되었다. 광배는 바위를 관해서 불상을 만들 때 불상주위를 길게 새겨 감실형의 주형 거친공을 형성하였으나 뚜렷하지 않다. 이처럼 이 불상은 자연스러운 신라식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방양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불상열면에 새겨진 조성기(佛)에 따르면 통일신라후기인 소성왕 1년(799년) 4월에 조성된 작품이다. 작가(원조법사) 발원자 불도 기재돼 있어 통일신라 하대 불상연구에 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 불상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으며 같은 지역에 있는 용봉사 신경리 마애석불의 관련 실태에도 결정적 자료로 평가된다.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손금카드 에..



▲알면 달마도 ▲읽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백을 자란다는 등 전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지연사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손금카드'로써 세계서 상용화(상용신안등록 No.02036호) 했다. 전만불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손금카드의 앞면은 달마도의 대가 대한 율종수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포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처, 이등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넷트 구에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정신 달마도를 고급 포우역자(27cm×33cm)화한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유사상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처: 한국지연사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